

순천시, 오는 15일 '2025 순천 올랑가 부캐 페스타' 개최

또 다른 나로 변신하는 하루, 순천에서 부캐로 놀다!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오는 15일(토)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중앙7길 일원에서 원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 테마 축제 '2025 순천 올랑가 부캐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시민과 관광객이 각자의 '부캐릭터(副 character)'로 변신해 원도심 곳곳을 누비는 참여형 행사로, 도심 유입 인구 확대와 상권 활력 회복이 기대된다.

행사는 다양한 코스튬과 분장을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지며, 인기 코스플레이어 팀이 참여하는 '부캐

플레이&부캐 런웨이'가 진행돼 중앙7길이 다채로운 캐릭터로 채워질 전망이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콘텐츠도 풍성하다. '프린세스·프린스 다이어리', 인기 캐릭터 포토존, 노래·댄스·성대모사 등 다양한 장르의 부캐 경연대회, 경품 추첨 등이 이어진다.

특히 지역 상인과 연계한 '올랑가 부캐마켓'에서는 음식·굿즈·체험형 콘텐츠가 선보이며, 축제 방문객 증가로 지역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사전 모집을 통해 시민 평가단과 부캐 플레이 참가자를 받고 있으며, 참여자에게는 원도심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과 기념품을 제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캐 페스타는 시민의 개성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순천만의 새로운 문화 축제"라며 "원도심 경계를 살리는 시민·관광객 주도형 행사로 발전시키고, 앞으로도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1월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열린 '제5회 고흥유자축제' 음식관이 지역 대표 미식 콘텐츠로 자리매김하며 축제 브랜드 가치를 한 단계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 먹거리부스는 고흥 참치회, 매생이떡국, 유자골고흥한우함박, 전통시장 숯불생선구이, 전어구이 및 회 반반 메뉴 등 고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제철 음식과 지역 식재료 중심으로 음식부스 16개를 운영하였다.

특히 모든 메뉴를 합리적인 가격, 청결

고흥유자축제, 먹거리부스 '맛, 양, 값의 브랜드화' 성공

"맛있고 푸짐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미식 축제 호평

한 조리환경, 높은 맛 만족도로 선보이면서 방문객들로부터 "맛있고, 푸짐하고, 부담 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또 하나의 축제"라는 호평을 이끌어냈다. 그 결과 먹거리부스는 축제의 핵심 콘텐츠로서 '축제 속의 축제'로 확고히 자리하였다.

먹거리부스 운영은 단순 판매가 아닌, 고흥 농수산물 가치 확산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목표로 진행되었으며, 영업주 위생 교육, 현장 위생 관리, 조리·판매 라인 동선 개선, 메뉴 품질 모니터링 등 사전에 철저한 관리 체계를 도입하여 청결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고흥 9미 음식 페스티벌'입점 음식점은 고흥 관내 주민단체와 음식점으로만 구성되었다. 축제 참여 음식점 영업자들은 단

순히 수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흥의 맛과 멋을 널리 알리고 고흥의 따뜻한 정서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군 관광정책실 관계자는 "이번 축제에서 먹거리부스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라며 "앞으로도 고흥만의 제철 미식 콘텐츠를 강화하고 지역 상인 참여 확대, 프리미엄 메뉴 개발 등 고흥형 미식관광 모델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흥/박도일 기자

강진 불금불과 감동 속에 피날레 내년 기약

올해 방문객 1만2,000여명 매출 2억여원 달성

강진군의 대표 금·토요일 행사인 '불금불과(불타는 금요일 불고기 파티)'가 지난 7일 피날레 특별행사를 끝으로 2025년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불금불과'는 강진군 병영면의 고유 먹거리인 돼지불고기에 이야기를 입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병영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지역 밀착형 야간 문화행사다. 올해는 후식거리를 제외한 4월 4일부터 11월 7일까지 총 34회 운영했다. 1만2,005명의 방문객과 약 2.0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특히 상반기에는 '강진 반값여행' 정책과 연계된 관광 혜택이 더해지며 많은 외지 관광객이 몰려 큰 활기를 띠었고, 병영시장 일대가 젊은 세대와 가족 단위 관광객으로 북적였다. 반면 하반기에는 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홍보 및 할인 혜택이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이번 피날레 특별행사는 한 해 동안 불금불과를 사랑해 준 군민과 관광객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풍요로운

추수철을 함께 마무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강진굴 병영, 작천, 성전, 움전면 등 북서면 주민들의 흥겨운 무대와 특별초청가수 '싸이버거'의 열정적인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다.

특히 싸이버거는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폭발적인 에너지로 현장을 장악해 "정말 재밌는 공연이었다"는 찬사를 이끌어냈으며, 주민 공연은 따뜻한 정과 흥이 넘치는 무대로 피날레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궜다.

또한 불고기 및 부채 반값 할인 행사, 보물찾기·경품 이벤트 등이 함께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장에는 청년가게, 장육상가, 농부 및 할미장터 등이 함께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강진군은 내년에도 불금불과를 지역 대표 야간 문화행사이자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상권 연계와 신규 콘텐츠 발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진/손경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카메라 뉴스



“장흥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내어드립니다”

장흥군이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했다.

군은 주차장 내 주차구획 35면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원인이 쉽게 찾을 수 있게 '민원전용주차' 노면 표기와 진입 유도 차선을 설치했다.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만 주차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다른 구역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그동안 청사 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 등 민원이 지속되어 왔으나 이번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지정으로 주차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영광군,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 전개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영농철 농기계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농촌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농기계는 천천히, 안전은 빠르게'라는 주제 아래 11월 11일 영광읍 터미널시장 일원에서 실시했으며, 농업인과 주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기계 안전운전 수칙, 교통안전 요령,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안내 등 실질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특히 야간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 농기계 운행이 잦은 고령 농업인과 트랙터, 콤팩트 등 중대형 농기계 운행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대면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구례군, 간부공무원 대상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전남 구례군은 지난 10일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5급 이상 간부공무원 33명을 대상으로 4대폭력(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내에서의 4대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대면 교육으로 진행했다. 군은 이날 전문강사를 초빙해 '성평등 가치에 스며들다'라는 주제로 관리자에 대한 성인지 감수성의 필요성,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방안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폭력예방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으로 세대 간 성인지 감수성 차이를 줄여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더불어 성평등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구례/한정호 기자



새로운 에너지 세상

자연이 만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세상은 더 밝아지고
우리는 더 따뜻한 미래를 꿈꾸게 됩니다.

태양의 힘으로 움직이고,
바람이 만든 에너지로 밝게 빛나는 세상

한국전력이 깨끗한 에너지로
새로운 에너지 세상을 열어가겠습니다

